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루카 9,3)

저는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별새를 관찰하며 예수님께서 삶의 무게와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신 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짐은 가볍게, 거의 벌거벗은 채, 바다의 아이들처럼”

스페인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의 시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히,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무거운 짐과 감정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이 공감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1차 감정과 2차 감정으로 구분합니다. 1차 감정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적이고 비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반면, 2차 감정은 이러한 1차 감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감정으로, 문화적 배경, 사회적 규범, 개인의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1차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야’라고 판단하여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수치심은 2차 감정입니다. 이처럼 2차 감정은 1차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인지적 평가나 해석에 따라 형성됩니다. 우리가 1차 감정에만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즉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정신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차 감정에 머무르게 되면 감정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는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이나 평가를 지양하는 연습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어 마음의 짐을 덜고, 삶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1월 6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정민하 울리오 부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정민하 울리오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아픔, 다툼과 분쟁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며,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봉사하는 이곳이야말로 주님께서 찾아주시던 곳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새해를 맞이하여 기쁨과 희망을 가득 품고 주님을 닮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해에도 월례 미사에 참석하시어 교정사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및 교황대사 방문



1월 8일(수)~10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희망을 노래하며’라는 주제로 겨울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님이 1월 8일(수) 고봉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겨울신앙학교에 참여한 천주교반 학생들에게 “누구에게나 문이 있는데, 힘들고 지치면 문을 잠근다. 하지만, 마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며, “여러분 곁에는 선생님과 친구, 신부님과 봉사자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있으니, 혼자 아님을 기억하고 모두 이 사랑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교황대사의 방문으로 더욱더 뜻깊은 신앙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체 봉사자 연수



1월 14일(화) 노들담 서울교육관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체 봉사자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라는 주제로 생활성가 가수 권성일 형제의 찬미의 시간과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의 강의, 그리고 각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은 여유롭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연수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연수로 인해, 2025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

박지니 데레사베네딕타\_ 2024년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생

언제부턴가 성당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주보에서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를 발견했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남자 친구를 데리러 간다는 친구 따라 경찰서에도 가봤고 지인 면회차 교도소에도 가봤지만, 교정사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맞아서 교육을 신청했지만, 업무 일정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수료는 힘들 거로 생각했습니다. 일이 많아졌을 땐 그만둘까도 싶었습니다.

8주 차 교육일 전날, 앞당겨진 마감일에 맞추느라 며칠 동안 고생한 터라 또 밤샘 생각을 하니 답답했습니다. 마침 동료가 전화를 걸어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일이 늘었다며 토로하길래 저도 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타인의 예전 잘못까지 들추면서 몇 시간 동안 뒷담화를 나눴습니다. 동료의 하소연에 장단을 맞출 뿐이라서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밤새워 작업하여 최종 오케이를 받은 후 집을 나서는데 어쩐지 현관 앞 십자고상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강의는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수용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였습니다. 짧은 심리극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강생 네 명이 의자 위에 등을 맞대고 서면 다른 네 명이 그 주위를 돌면서 의자 위의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 역할을 맡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 넘실대더니 체험을 마치고 자리에 앉을 즈음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처음 성당에 발 디뎠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양손으로 오지랖을 여며야 했던 2015년 3월의 마지막 주말, 차를 피하려다 성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선 성모님의 모습이 마치 “어서 오렴.” 하며 말을 건네시는 듯해서, 그 따스함 속에 머물고 싶어서 예비신자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건 쉬워도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탓을 하느라 지쳐서 부모, 형제와도 소통하기를 거부하던 제게 예수님은 다르게 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 역할을 맡은 이의 눈빛에서 십자고상 예수님의 안쓰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까닭입니다.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고객을 탓하며 일을 미루었고, 마감일이 앞당겨지자, 불평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서두르다가 추가 지시 사항을 놓친 건데, 남의 허물을 통해 제 실수를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제 잘못도 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13주간의 교육과정이 끝났습니다. 여전히 봉사자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제게 현장 봉사자의 한마디가 용기를 건넵니다.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 놉의 사제 아히멜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아히멜렉 생전의 왕은 사울뿐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였기에(1사무 22,6-19) 사울의 형제라 칭하였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만난 사제(1사무 21,1-10)입니다. 쫓기는 신세에 배가 고플 때, 다윗에게 빵을 건네고, 또한 무기까지 쥐여 줍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그를 다윗은 형제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그리고 성읍의 주민과 젖먹이 집짐승까지 학살하였을 때, 다윗은 이 죽음이 ‘자신의 탓’(1사무 22,22)으로 여기고 자신과 함께 머물게 하였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아들 차독과 함께 대사제로 일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다윗의 도움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왕의 형제’라는 아히멜렉의 이름을 되새겨 본다면, 그는 다윗 왕이 고난에 힘들어할 때 기꺼이 도와준 형제였으며, 또 다윗 왕 역시 그를 형제로 잊지 않고 그 집안을 보살피었다고 후대 사람들이 기억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았다. (...)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 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 내고 따끈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 놓은 것이었다. (1사무 21,2-7)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전투를 알고 있습니다(1사무 21,10). 그러나 사울의 질투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 혹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죽기 전에 사울 앞에서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는 발언(1사무 22,14)으로 보아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큼

다. 다만 다윗이 임금의 신하이면서 임금의 사위이고, 많은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떨면서 맞이한 듯합니다.

그 빵을 다윗에게 주기 전에 여자를 가까이하였는지의 물음이 마음에 걸립니다. 정결한지, 불결한지에 대한 물어봅니다. 여자를 가까이하였으면 불결한 사람인가, 며칠 전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정결한 사람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정결하고 불결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 불결한 사람이면 빵을 주지 않았을 것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허기에 못이겨 쓰러진 사람일 경우에는 지나쳤을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레위 15,1-30; 22,1-16). 더 세세한 규정과 세칙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자신이 세운 원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간 당시 시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제의 한계였을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돕기 위해 빵을 주어 먹인 사제를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자가 전쟁 영웅이자 고위직 관리인 다윗이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마르 2,24-26)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마르 2,27)의 말씀의 예가 된 아히멜렉 사제입니다. 다만 그 역시 규정을 온전히 뛰어넘어 굶고 있는 이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법과 규정, 원칙을 지키는 것과 온정을 베푸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교정사제와 수도자, 봉사자들은 교정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마주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정기관의 경우에는 지켜야 할 규정과 원칙이 있습니다. 단체를 책임지고, 또 공동체를 담당할 때는 더 신중하게 되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고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를 지나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더 큰 원칙은 “사랑하라”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 창업은 항상 꿈꿔왔던 목표

이OO\_ 2024년 창업대출자

2024년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자 창업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받게 된 이OO 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업은 항상 꿈꿔왔던 목표였고, 오랜 시간 해당 업종에 종사했던 만큼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센터를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줄곧 피트니스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해당 업종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 ▶ 현재 업종의 장단점과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장점으로는 첫 번째,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트니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 피트니스 센터, 개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사업 모델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운동 트렌드, 건강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단점으로는 높은 경쟁률과 빠른 트렌드 변화, 고객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서비스 업종은 매년 최저시급과 가격이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업종만이 매년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급했다시피, 피트니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경쟁률이 치열하기에 회원들이 만족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동 생리학, 영양학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만큼 고객의 목표와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운동 기구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 사업 운영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다년간의 경력과 경험으로 쌓은 5,000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운영 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 마련 시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추가로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

회 기쁨과희망은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 영업을 하시면서 나만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꾸준한 공부와 다년간의 경험으로 고객의 목표와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신규 회원분들에게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 ▶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전적인 면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 운영자에게 인수 시진 채무를 갚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채무 해결 후, 운영을 통해 자금을 저축하여 센터 리노베이션과 기구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에 지인들의 도움을 바로 받았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쁨과희망은행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 센터 지점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업종에 대해 예비 창업자에게 조언이 있다면?

기본 베이스로 트레이너 FC(영업)부터 순차적으로 매니저, 팀장 역할을 다 경험해 보고 센터 운영 방식이나 돌아가는 기본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익숙해져야 현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많은 리서치와 해당 업종에 관한 꾸준한 공부와 이해도가 필수입니다. 많은 변화가 생기는 한국 시장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나요?

플랜A, B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일정이 생각 외로 많이 지연돼서 걱정이 컸습니다. 당시 여자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신용불량자와 센터를 송두리째 날릴 뻔했습니다. 일정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과 서류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면밀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장 안 이야기

To 사회교정서목위원회님께 ♥

안녕하세요. ■■■이예요 벌써 한 해가 거의 끝나가네요 그동안 저에게 여러가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영어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실력도 많이 늘었고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도 즐겁게 보내시고 이번 한 해 다짐 🌸 가지도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되세요. ♥

🌸 - ■■■ 올림 -



To. 사회교정서목위원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올해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 저를 위해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어학원을 다닌 덕분에 영어실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1월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요. 정말 기대드요! 그리고 제가 곧 중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죠? 중학교에 가는 게 걱정도저도 없고 기다려지기도 해요. 이제 조금 남은 2024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 ■■■ 올림 -



\* 수용자 가족 지원을 받으며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가 사회교정서목위원회에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자매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3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 행사 알림

- 2월 10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2월 10일(월)~14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의정부교도소
- 2월 11일(화)~12일(수)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성앵베르센터
- 2월 14일(금) 제32차 이사회 / 교정사목 센터
- 2월 19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12/15~25/01/15)

2024년 12월~2025년 1월에는 김사훈 세례자요한, 이경숙 실비아, 이규민 시몬, 이승하 마카리오, 이희준 소하 데레사, 전현정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보영 베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돈암동 성당, 등촌1동 제대회, 허현주 라파엘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